

주일 1부 예배

영원한 제사장 (시편 110:1-7)

▶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본문이다.

시편 110:4 **여호와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 이 단어는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나온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은 분이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 히브리서 7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다.

히브리서 7:3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실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때이다. 그 외에는 나타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신 안 된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언약으로 확인하고 확정하기 바란다.

1.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

▶ 인간에게 최고 급선무가 무엇인가? 많이 있겠지만 먼저는 살아야 한다. 이유는 죽었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이 죽는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닌 영원한 죽음이다. 그 죽음은 죽으려고 노력해도 죽어지지 않는 그런 죽음이다. 이런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운명에 잡히는 것. 여기에서 건져내신 분이 그리스도이다. 인간은 이 생명의 문제를 제 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계속되서 다가오는 문제들이다. 심한 경우 저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 기독교인은 일단 구원에 대한 응답은 받았지만 두 번째로 오는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이 걸려있다. 이유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쟁 하면 우린 반드시 이기게 되어있는데 기도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다. 답은 이미 완전하게 와있다. 처음엔 조금 되는듯하다가 어디에선가부터 막혀서 힘들어지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심지어 각종 중독을 앓고 있는 하나님 자녀도 있다. 분명히 사단의 역사인 줄 알텐데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것이다. 기도로 노력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안 된다. 기도가 필요 없다는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내 소원을 말하는 기도는 일단 힘이 없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기도와야 힘이 있다. 그래서 때로 기독교인들도 우울증에 걸린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니 왜 일이 안 풀리고 잘 안 되냐며 발버둥을 친다. 힘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것이면 반드시 사단은 박살 난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살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신앙이 얼마나 신동치 않길래 자살을 하는가?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이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혹 불신앙이 들어와 있으면 이번주에 깨기 바란다.

▶ 두 번째로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

하고 사단을 박살내기 원하신다. 내 인생이 사단에 잡히고 문제에 잡혀 허덕이는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흑암 세력 꺾고 나와서 증인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 이렇게 하면 응답 안 되던 중직자, 전도 안 되던 전도자에게 응답이 올 것이다. 왜 안 되느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 것이다. 사람이 계속 죄를 지으면 저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있다. 이유는 죄가 곧 저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일단 구원에서 떨어져 지옥에 가는 일은 없고,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응답 받는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이긴다. 죄를 안 지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노력하는데 이것은 종교이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그리스도 누리보다 크다면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누릴 때 죄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와 불신자의 차이는? 불신자는 가만히 있어도 저주가 온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렇다. 그래서 불신자는 영적 저주와 육신적 저주가 계속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해방되었다. 이것이 제사장이다. 우리는 저주에 잡혀지 않는다.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 뜻이지 거기에 잡혀 죽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 기도하고 흑암 세력 꺾으며 전쟁 벌이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있다.

▶ 어려운 일 많으신가? 잡히지 말고 기도하고 승리해야 한다. 길이 반드시 있다.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것이다. 낙심하면 안 된다.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응답받았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만일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송두리째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천천히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 문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린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 모든 문제에 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사실인 것을 마음에 믿으라. 믿음 안 생기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걸 영적 전쟁이다. 내 마음이 두려지면 저주에서 나오는건데 그게 안 된다? 사단 아닌가? 왜 이것 하나에 걸려서 내 인생을 날릴 것인가?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워 하는 것이다. 다시 시작하라. 마음에 불신앙 있는 사람 이랬어 될까? 하는 사람 전부다 박살내라.

2. 받은 말씀을 실천 하세요.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말씀이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듣는 강단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으로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근본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은혜만 받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고 늘 기도하는데 진도는 나가지 않는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행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증거는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받은 말씀이 없다면 실패한 것이다. 예배 드리러 왜 오는가? 은혜 받으러 오는가? 개인적으로 확실히 그리스도를 누리야 하다. 매주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전쟁하는 것. 그래야 인생이 100%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잘 안 되어지는 분들은 길

이~ 그리스도를 꼼꼼히 누리기 바란다. 복음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마음에 심기를 바란다. 한꺼번에 되는 일은 없다. 전부 점차적으로 된다.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된다. 서두르는 것에 뚜명 열해보면 속에 동기 들었다. 하나하나~ 또박또박~ 꼼꼼하게 하나하나! 그리스도를 누리야 한다.

▶ 또 한가지는 말씀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나를 죽이면 말씀이 실행에 옮겨질 것이다. 사실은 내가 살아있어서 모든 것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 인생은 이것뿐이다? 하는 사람은 참 큰일이다. 사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만 잘 보면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이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나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없다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마태복음 16: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 내인생과 경계를 살리려면 나를 먼저 죽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물고기가 하나는 있어야 한다. 눈에 물을 대듯이 하나님 나라에 계속 물을 대어 줄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꼭 죽을 것 같으니까 큰 인생을 살기 못하고 전부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먼저 실행하면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결단하라.

▶ 우리는 우리의 계산을 내려놔야 한다. 백살 해봐야 답 안 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손해 본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을 한번 크게 딱어줘야겠다. 힘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실 것이다. 많이 하라는게 아니니 못할 것도 없다. 너무 돈에 벌벌 떨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사실 배설물 아닌가. 그것 가지고 천국을 가겠는가? 내일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인생도 경계도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다 죽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죽어있다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이상이다. 그것은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자꾸 나를 내세우지 말기 바란다. 사단이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술책이니 절대 걸려들지 말라.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흑암 세력을 꺾고 행동으로 옮길 때이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의 끝이라는 것이다. 율법은 복음의 반대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서 그 힘으로 율법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그 때 흑암세력이 무너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1점 1획도 없애지 않고 다 성취하신다고 한 것이다.

결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요. 말씀과 그리스도의 비밀도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비밀, 복음은 아주 간단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냈다. 그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영원히 저주에서 해방시켜줬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일을 하신 분이 제사장이다.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승리하는 것! 행할 힘이 없으면 힘주시라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도 힘 없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지속하면 역사 일어난다. 그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받은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흑암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마지막 확인이 말씀 실행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이 주간 첫째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렇다면 그 언약 잡고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항상 말씀을 받기 바란다.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있다.

2017년 9월 3일 임마누엘 남가주교회 주간메시지

1부 예배 (임마누엘 1부)

재앙 막는 제1헌신 (딤후2:1-7)

♣서론

-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다른 것, 세가지 재앙을 막을 미래를 알리는 것을 준비하셨다.
- 1)삶의 재앙 가운데 견져서 하나님의 미래를 붙잡도록 하고 계신다.
- 2)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온다. 거기서 벗어나는 미래를 붙잡아라. (창3장, 6장, 11장, 이스라엘의 7전쟁, 마24장, 마25장, 딤후3장)
- 3)제3 영적 재앙이 오는데 전세계가 정신문제에 빠진다. 마약, 중독, 동성애는 정신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붙잡고 여러분을 부른 것이다.
- ▶세가지지를 확실히 해라. 어디를 가든지 흑암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어디를 가든지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어떤 시대를 만나든 이길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비밀, 오직 성령, 땅끝까지 증인....(행1:8)
- ▶헌신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가장 축복의 대열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 1.교회, 후대, 세계 살릴 교역자를 올바르게 키워라(RTS)
 - ▶3재앙을 막을 주역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을 만들어라. 무엇으로 키워야 하는가?
 - 1)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 2)선한 싸움할 수 있는 경가하는 자로
 - 3)사람 살리는 싸움 할 수 있는 농부같은 자로 만들어내라.
- 2.지금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RU가 필요하다.
 - ▶그래서 세계 대학 중심으로 모인 미국에 RU를 세운 것이다.
 - 1)237개 나라 영적 문제 막아야 된다.
 - 2)237개 나라 영적 지도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 3)미국의 신학교 전도 훈련을 해야 한다 .
 - ▶하나님이 왜 이드로, 오바다, 가이오, 브리스가 부부를 축복하셨는가?

- 3.전 세계 후대 키우는 RUTC 운동을 해야 한다.
 - 1)제1RUTC운동- 가데로 바데아로 모여라.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사실을...미스바로 모여라, 도단성으로 모여라, 만민을 위해 기를 드는데 거기에 렘넌트들이 모여라.
 - 2)회당, 서원, 저자로 들어가라. 제2RUTC 운동
 - 3)불활성 시대가 오는데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제3RUTC 운동
 - ▶로마를 살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론- 이 세가지지를 할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237개 나라 목회자를 세우고, 다민족을 훈련하며, 렘넌트들이 머물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하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에 올인(All in)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올라옴(All out)하게 되어있다.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 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오늘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란다.

(임마누엘 2부)

만남의 축복 (행18:1-4)

♣서론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만남의 축복이다.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이다.
 - 1)브리스길라 부부는 법적으로 추방을 당했다.
 - 2)너무 억울한 일이다.
 - 3)앞으로 내가 뭐하고 살아야 하는지 희망이 안보인다. 이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한다. 잘못보면 현실을 보고 착각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때 전도자 바울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하셨다. 이 만남속에서 그 부분은 전도자가 되었다. 로마까지 쓰임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 ▶이때 제가 동심제일교회에 왔다.
- 1.평신도 운동(1988-1991년)
 - 1)마16;13-14,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생활, 신비운동→ 2주간

- 복음을 각인하는 집중훈련을 했다.
 - 2)마16:16, 복음의 답, 각인, 충격
 - 3)행5:42 어느 장소이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 ▶여러분은 현장 살리는 다락방 운동의 주역이다.
- 2.목회자 운동(1992-1996년)
 - 1)목사님들이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람 눈치보게 된다.
 - 2)교인이 아무 힘이 없고, 교인들 감소하고...
 - 3)목회자는 다른 동기로 충만하게 된 현실이었다.
 - ▶그런 현실속에서 복음으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목회자에게 큰 힘을 주는 전도제자이다.
- 3.렘넌트 운동(1997-현재까지)
 - ▶목사님들이 살아나니까 미래 준비를 하게 되었다.
 - 1)어른으로는 안된다. 12가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 2)렘넌트에게 각인-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의 키(key)였다.
 - 3)미래 재앙을 막는 길이다.
 - ▶미래를 준비하고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이다.

- 4.중직자 운동(2005년- 현재)
 - 1)목회자에게 힘을 줘야 한다. 비밀결사대가 있어야 한다.
 - 2)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Holy Mason)
 - 3)렘넌트 발판이 되어줘야 한다.(Remnant Missionary)
- ▶중직자 운동은 현장이다.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파송하는 것이다.

- 5.RUTC 운동
 - 1)제1RUTC 운동
 - 2)제2RUTC 운동을 올해하고 있다. 황금어장을 살리자.
 - 3)제3RUTC 운동- 2018년, 선교관, 문화관, 학사관. 사각지대를 살리자.

♣결론

- 1)30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지내왔다. 감사밖에 없다.
- 2)남은 인생- 237개 나라(세계 재앙을 막는 전도자), 렘넌트와 다민족(미래 재앙을 막는 전도자),
- ▶여기에 쓰임 받는 나, 나의 업, 나의 가정과 교회!